



장휘옥·김사업 교수는 미얀마의 위빠사나 수행처 '세우민 센터' (사진 왼쪽)와 일본 임제종 참선 도량인 고가쿠지 등 세계의 이름난 선방을 3년동안 찾아다녔다.



일본 임제종 스님과 함께 서있는 장휘옥(맨 왼쪽)·김사업 씨.

전세계 선방 돌아 지금 여기에

■ 지은이는 누구

#장휘옥은 부산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불교학과에 학사 편입해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화엄사상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은 뒤 동국대에서 불교를 가르쳤다. 일본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불교학회 이사, 원효학 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토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해동고승전 연구> <정토불교의 세계> <불교학강의실 1·2> 등 10여권이 있다.

#김사업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이후 대기업 기획조정실에서 입사한 뒤 1년 2개월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동국대 불교학과에 편입했다. 유식사상(唯識思想)을 세부전공으로 석박사과정을 마친 뒤 일본 교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동국대 교수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한국불교의 천태사상(Chontae Thought in Korean Buddhism)>이 있다.

도쿄대 교토대, 일본의 두 명문대학에서 각각 박사 학위를 받고 동국대에서 불교를 가르치던 장휘옥(54·미래학 불교회장)·김사업(44·오곡도 불학연구소 소장) 교수가 모든 것을 버리고 2001년 경남 통영의 외딴 섬 오곡도(烏谷島)로 떠났다.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의 초발심을 잊지 않고 수행에만 몰두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두 사람은 정기 배편도 없는 오곡도의 폐교를 6개월에 걸쳐 개조해 '오곡도 명상 수련원(www.ogokdo.net)'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들은 2002년부터 3년동안 떠나는 대로 해외의 이름난 선방(禪房)을 찾아 다녔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불교 수행법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한국 불교에 도움이 될만한 요소들을 배우기 위해서다. 이들의 그 귀중한 체험들이 최근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왔다. 바로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다.

책의 곳곳에서는 각종 수행자들의 치열한 구도 역정은 물론 그 속에서 함께 체험하며 그들의 향훈을 놓치지 않으려는 지은이들의 수행에 대한 열정을 함께 만날 수 있다. 특히 일본 임제종의 참선 수행 도량인 고가쿠지에서 지은이들은 6번씩이나 집중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본 스님들과 함께 하루 15시간씩 좌선하고, 매일 5회씩 방장 스님과 만나 독참(獨參)으로 수행을 점검 받기도 했다.

고가쿠지의 '로하스 오젠타인'이란 집중 수행 프로그램은 1년중 가장 추위가 혹독한 양력 12월 1일부터 8일 새벽까지 진행된다. 수행 기간에 수면 시간은 하루 약 1시간에 불과하고, 식사와 청소를 제외하고 매일 15시간씩 좌선한다. 수행처에 온기라곤 전혀 없다. 아니 오히려 한 겨울에도 선방의 문을 모두 열어놓고 찬바람을 맞으며 수행한다. 그러다 보니 동상은 물론, 졸다가 마루 밑으로 떨어져 머리가 깨지는 수행자도 생긴다. 하지만 수행에 참가한 이들의 화두(話頭)를 깨치려는 열기는 바깥의 혹독한 추위를 녹이기에 충분하다.

장 휘장은 "세계의 선방 수행 체험을 해보니 일본 임제종의 간화선이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함을 느꼈다"며 "임제종 간화선은 수행자가 매일 스승과 일대일로 만나 화두 참구에 대한 경지를 점검받는 독참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체험 후 느낀 점을 설명했다. 장 휘장은 또 "우리나라에도 독참 전통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혼자 참선하는 간화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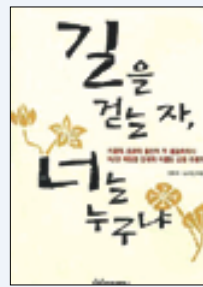
몸과 마음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미얀마의 위빠사나 수행처 '세우민 센터'에서 지은이들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밤 10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좌선과 행선을 중심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묵언과 오후 불식을 철저히 지키는 집중 수련을 통해 매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차렸다. 또한 틱낫한 스님의 플림 빌리지에서는 율력, 진리 토론, 대지(大地)와 접하기 등의 수행을 하며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을 호흡과 걷기 명상을 통해 자각하는 체험을 하기도 했다.

유럽의 선방을 다니면서는 구산 스님의 제자인 영국과 프랑스에서 한국 선을 지도하고 있는 마틴 베를러·스티븐 베를러 부부를 비롯해 숭산 스님의 제자인 우봉 스님, 중관학(中觀學)의 세계적 거장인 스위스 로잔대학의 자크 메 교수 등 벽안의 수행자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들과의 대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책에 옮겨 놓았다.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두 사람은 책에서 "수행을 하면 보잘것 없는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특하면 다룬 주면 사람들과도 웃고 지낼 수 있으며,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좀더 거창하게 말하면, 살아 가면서 겪는 슬픈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어디에도 걸림없는 대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한다. 바로 이들이 이 책을 바깥 세상으로 내놓은 이유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장휘옥·김사업 지음 더북컴퍼니 펴냄 9천원

세속 욕심·명예 모두 놓고

외딴 섬으로 떠난 두 불교학자

3년간 세계 누비며 체험한 禪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건다

아손 그레스트 지음 | 김상열 옮김 책과함께 펴냄 | 1만4800원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04년 12월 24일부터 다음해인 1905년 1월까지 스웨덴 신문기자 아손 그레스트가 대한제국 국외의 한국을 돌아본 여행기이다. 당시는 러일전쟁중이어서 일본은 외국인, 특히 서양인의 대한제국 방문을 금지하고 있어서 그는 영국 상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밀입국했다.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를 최초로 방문한 스웨덴인은 1926년 일본의 초청을 받아 조선에 왔던 스웨덴 왕자 구스타프로 알고 있다. 때마침 경주의 신라왕릉 하나를 발굴하고 있었기에 그의 방문을 기념하여 금관이 출토된 그 왕릉의 이름을 스웨덴의 한자명인 서전(瑞典)의 서(瑞)자와 봉황의 봉(鳳)자를 따서 서봉총이라 하였다는 설명과 함께 말이다.

그러나 그보다 20년 전에 최초로 한국 땅을 밟은 스웨덴인 그레스트는 1905년 을사조약 직전의 간박했던 대한제국의 현장을 직접 찍은 140 컷의 사진과 함께 객관적이면서도 따스한 시선의 글들을 책에 담아내고 있다. 구스타프 왕자가 일본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간데 비하여 틀레 들어온 그는 전국을 구석구석 비집고 들어 다본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파란 눈에 비친 100년 전 우리

그는 직접 찍은 사진에 스스로 설명까지 달아 놓았다. 틀린 설명도 있지만 나름대로 낯선 풍물을 이해하려 애쓴 외국인의 노력이 엿보이며 그것은 한국외국어대 스칸디나비아어과 교수인 여자 김상열 교수에 의하여 바로잡혀 있다.

저자거리에서 들건을 파는 사람들, 지게꾼, 빨래터의 여인들, 호기심어린 눈으로 이방인을 바라보는 사람들, 한때를 함께 보낸 서울의 기생들, 장엄한 황태자비(순종의 첫 부인)의 장례식 광경 등 100년의 우리의 모습을 그린 이 책은 오늘을 비추보는 거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이사벨라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그리피스의 <은자의 나라 한국> 등 비슷한 시기 외국인의 기록과 함께 한국 근대사의 귀중한 자료로 꼽히고 있다.

이 책에서 무엇보다 눈여겨 볼 것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문화민족으로 규정하며 곳곳에서 그 특징적 면모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승승장구하는 일본이 그 문화의 대부분을 물려받았다는 점, 하루 세끼만 해결되던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처럼 낙천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들, 일본에 머물다 왔기 때문에 일본인들과 비교할 때 머리통 하나는 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며 체력도 좋은 뿐만 아니라 태도는 여유가 있으며 당당하다고 한국인들을 표현하고 있다. 몸놀림은 일본인의 특징인 발벌 기는 비굴함과 과장된 예의 차리기와는 거리가 멀고 자연스럽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통시대의 끝자락, 망국의 먹구름이 밀려오는 시대에 무너져 내리는 국가의 운명 속에서도 선인들은 여전히 분레 갖고 있던 상냥함과 친절함을 잃지 않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왜곡된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다. 역사 깊은 문화국가의 면모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옥자(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2004년도 불교역사를 한 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10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4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습니다. 매주 32면 발행으로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더 없는 불교신문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2004년 합본집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VCD 1장을 증정합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4년 1월(404호) ~ 6월(480호) 하권 2004년 7월(481호) ~ 12월(506호)
- 판형 : 신문원형 (40cm x 55cm)
- 절차 : 전화신청 → 입금확인 → 택배발송
- 가격 : (상·하 2권) 총 80,000원 (발송비 무료)
- 입금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2004년도 이전 합본집 한정 특가 판매 !!

- 2003년(상·하 2권) 70,000원 • 2000년 ~ 2002년 각 50,000원
- *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 하세요

